


| | | | |
|---|-----------|---|-------------|
|  | 성명 | | 충남도당 |
| 2020년 01월 23일(목) | |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 정책부장(010-4903-2211) |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 | | |

도민을 농락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만찬 간담회를 열고 균특법안 저지에 뜻을 모았다.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안을 방치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대 국회 내내 꼬투리를 잡고 몽니를 부리며 개혁법안 통과를 막아오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 지정을 방해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막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앞에서는 충남 혁신도시를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지정을 방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모순을 넘어 도민을 농락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거두고, 500만 충청인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